

1963명 참여 대형 비빔 퍼포먼스 한국기록 등재

‘전주비빔밥축제’ 다채로운 프로그램·공연 등 펼쳐져 방문객 추억 선사

맛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가자 ‘전주페스타 2024’의 포문을 연 ‘2024 전주비빔밥축제’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한국기록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 ‘2024 전주비빔밥축제’에 연인원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전주의 매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전주페스타 2024의 시작을 함께한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구체적으로 △전주의 음

식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음식주제관’ △다양한 전주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주음식테마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비빔가왕’과 ‘비빔골든벨’, ‘떡방배틀’, ‘비빔보물찾기’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서 전주의 공연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비빔퍼레이드와 버스킹 공연, 비빔송댄스 등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돼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전주시민과 관광객 등 1963명이 참여한 대형 비빔 퍼포먼스를 통해 만든 대형 비빔밥이

한국기록원(KRI)에 등재됐다.

5일 전주종합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대형비빔퍼포먼스는 1963년 시민의 정성으로 건국된 전주종합경기장의 철거를 앞두고 이를 기억하는 의미로 기획된 것으로, 1963명의 참가자가 거대한 비빔밥을 완성하는 장관을 연출하며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한국기록원은 참여 인원과 퍼포먼스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한국기록으로 공식 등재됐음을 발표했다. 이로써 전주비빔밥축제는 한국기록 등재를 통해 전통음식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주의 문화적 자부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다.

축제에 참여한 한 방문객은 “1963명이 함께 비빔밥을 비빔하며 한국기록에 도전하는 순간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고,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면서 “전주의 전통음식과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축제는 전주비빔밥 등 전주의 다양한 음식과 전주의 맛, 그리고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전주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해 전주비빔밥축제를 찾는 분들께 더욱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주 상생 도서관 문화여행

한옥마을도서관·완주 위봉마을 봉강요 등 방문

전주시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도서관 문화여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완주 상생 도서관 문화여행’은 전주의 도서관과 완주의 문화공간을 경험해보는 여행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일 진행된 ‘전주·완주 상생 도서관 문화여행’은 여행자들이 전주한옥마을 내 도서관과 완주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동문헌책도서관 △한옥마을도서관 △완주 위봉마을 봉강요 등의 코스로 운영됐다.

여행자들은 먼저 동문헌책도서관에서 ‘어제의 금서가 오늘의 고전’을 주제로 과거 출판 판매가 금지됐지만 현재는 명저가 된 책들을 둘러보며 공간 해설을 들었다. 이어 한옥마을도서관에서는 ‘나를 찾는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큐레이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행자들은 완주군 소양면 위봉마을 위봉사 일구에 위치한 전통문화공간인 봉강요를 찾아 △삶의 치유와 힐링이 되는 예술 인문학적 치유관광 △도자갤러리 △전통방식 장작가마 등 휴식 이용



한 도예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날 방문한 봉강요는 전북 명장으로 선정된 도예가 진정옥 대표가 운영하는 도예박물관공간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는 도서관 문화여행의 일환으로 완주의 웰니스 축제 및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 축제와 연계한 도서관 여행으로 여행자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완주 상생 도서관 문화여행이 지난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인 만큼, 올해도 전주와 완주가 담고 있는 문화와 도서관을 연계해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주 상생 도서관 문화여행 및 특별 도서관 여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일본 가나자와시의회, 우호협력 증진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 우호교류협정 따라 전주 찾아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가 지속적 우호 교류를 통해 전통문화예술도시 조성 등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다카무라 요시노부(高村 佳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표단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시민 양 지역의 시의회는 지난 2004년 우호협력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전통문화와 지방의회 운영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가나자와시의회 방문대표단장을 맡은 다카무라 요시노부 의원은 방문 첫날인 지난 2일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등 우리 측 의원들과의

회담에서 “그동안의 교류가 양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잠시 끊겼던 가나자와시의회와의 방문이 다시 이어진 데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교류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전통문화도시 발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과도 차담회를 갖고 시청 책기동 도서관을 둘러본 후, 한지산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팔복예술공장 방



전주시의회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가 지속적 우호 교류를 통해 전통문화예술도시 조성 등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과 각종 전통문화체험시설 방문을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축제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갖고 4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중증 장애인들과 순창 가을 나들이 나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가을을 맞아 중증 장애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다.

6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일 장애인 10여 명과 함께 순창발효테마파크를 찾았다. 일행은 발효소스도굴과 흥매관 등을 관람하고, 전통 고추장 장담기도 체험했다.

이날 행사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인근 관광지를 여행하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등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김옥기 기자



공단은 이차별 특장차량 6대를 동원해 일행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졌다. 공단 교통약자지원부 직원들로 구성된 이차콜택시지원봉사단원 10여 명도 도우미로 나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신규기관 활동지원사 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자리로 활동지원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필수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예방 조치 안내 등이다. /김옥기 기자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지침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여의동 한마당 문화축제’ 성황리 열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애향회(회장 양시영)와 자생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3회 동민의 날 기념 ‘2024 여의동 한마당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국주영은 전북도지사, 전주시의회 송영진·김학송·신유정 의원, 지역기관장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장수군 산서면 면장,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해 여의동 동민의 날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여의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농악이 주민센터에서 조춘초등학교까지 길놀이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무대 식전공연으로 난타와 댄스스포츠 △동민의 날 기념식 △동민 노래자랑 △경로당 웃놀이 대회 △초대 가수 축하공연 △떡거리 나눔 △경품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기념식에서는 여의동 지역발전에 기



여한 동민 15명에게 유공도민·유공시민 표창과 여의동민인장, 감사패, 대한노인회 공로패 등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여의동 26개 경로당에서 2명의 선수를 선발해 예선전을 통과한 최종 4팀이 결승전을 진행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관람하고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했다.

양시영 여의동 애향회장은 “행사를 준비 등 많은 수고를 해주신 애향회원 및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동민의 날 행사가 거듭 발전하여 여의동민의 소통과 화합, 발전의 상징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9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6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임창희



백미현



노승연



백명일



백명주